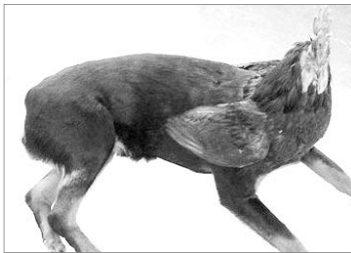


국가별 동향



미국

닭 머리에 개 몸... 하이브리드 '닭개' 논란



머리는 닭 인데, 몸은 개다.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생명체 같다. 자세를 보면 살아 있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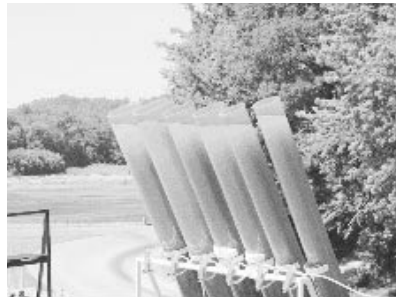
해외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화제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이 '괴물'은 미국의 한 박제 전문가가 만든 작품(?)이다.

신기하다거나 멋있다는 칭찬은 많지 않다. 상상력 수준이 절대 높지 않은 '악취미'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대세다.

[NAVER.COM]

올텍(Alltech) 최첨단 녹조류 공장시설 \$1,400만 달러에 인수

글로벌 동물건강영양기업인 올텍이 미국 윈체스타(Winchester)에 위치한 마텍 생명과학기업



인수했다고 밝혔다.

올텍이 가장 최근에 기술플랫폼으로 제시한 녹조류 발효분야는 식품과 사료 그리고 떠오르는 대체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텍 윈체스터(Alltech Winchester)로 불리게 될 이 시설은 백만 리터 이상의 발효량을 더 생산할 예정이며 북아메리카에서는 5번째로, 세계에서는 10번째 생산시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텍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1개 이상의 공장 시설이 있으며, 120여 개 나라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녹조류는 매우 가치 있는 사료제품, 바이오 연료, 에탄올생산 등으로 사용 될 것이며, 발효조 안에 있는 자동화 조정 모니터 시스템은 새로운 개발뿐만 아니라 현재의 발효과정에도 올텍에게 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lltech]

으로부터 \$1,400만 달러 (약 168억 원)에 최첨단 녹조류 발효공장을



인도네시아

가금류 소비 36% 증가 예상

2010년도 4분기 인도네시아 농업 보고서를 보면 2014년까지 가금육 소비가 3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자국 내 수요 증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으로 세운 자급력 확대 및 주요 가금 수출국으로의 성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14년까지 소비가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 수치에 실제로 도달하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다고 보고되었다. [Asian Poultry]



말레이시아

가금류 백신접종 권장

말레이시아 가축질병방역부는 홍수 때문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가금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New Straits Times 의하면 최근 수천 달러의 피해를 보았으나 오랫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농장주들은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전했으며 Ahmad Shafri Hassan 의사는 “전염병이 Kuala Terengganu 지방에 있는 몇몇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질병 청정 구역이라고 해도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The Poultry Site]



태국

계란가격 상승

추운 날씨로 계란 생산성의 영향을 받아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여 계란공급량이 줄면서 계란 가격이 개당 0.10 THB 에서 2.70 THB(0.089 USD)으로 상승하였다. 공급량은 20~30% 감소하였고 계란 생산량은 하루 2천5백만~2천6백만 개로 평상시 2천8백~3천만 개보다 떨어졌으며 사료섭취량 증가로 생산비 또한 증가하였다. [asian-agribiz]



러시아

가금육 가격 상승예상

러시아는 지난해 가금육 생산량이 2009년도에 비해 5% 상승한 194,100톤으로 증가하였지만 kg당 가격은 2009년도 74.33 RUB(2.53 USD)에서 3% 감소한 71.89 RUB(2.44 USD)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2010년도 4/4분기의 수입량 증가의 영향으로 보이며 아직도 수입된 가금육의 재고량이 많아 2011년도 1/4분기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입쿼터제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하여 앞으로 가금육 가격은 2011년도 2/4분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The Poultry Site] **양계**